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 변화 양상 분석

Analysis of Changing Aspect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 Japanese Textbooks

박소영

한국학중앙연구원

So-Young Park(parksy@aks.ac.kr)

요약

본 연구는 일본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 중 한국문화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와 중학교 '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의 한국문화에 관한 서술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서별 한국문화 콘텐츠를 기본적 요소, 독창적 요소, 시대반영적 요소로 분류하고 각각의 요소를 전통과 현대, 표층과 심층으로 재분류하여 각 유형별 등장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본 교과서에는 한복, 김치, 온돌, 고층아파트, 식사예절과 같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수도 서울의 모습과 같은 표층적·기본적 문화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의 의·식·주 문화와 같은 기본적 문화요소가 대부분이다. 시대반영적 요소인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한류 등도 해당 시기 교과서에 충실히 서술되고 있다. 한국문화 콘텐츠는 2010년대로 올수록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콘텐츠의 표현방법도 최근 교과서로 올수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시각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 중심어 : | 일본 교과서 | 한국문화 콘텐츠 | 기본적 요소 | 독창적 요소 | 시대반영적 요소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track down on changes in the way Korean culture was covered in Japanese textbook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the 1980s by reviewing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the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geology' textbooks for middle school, which are two compulsory subjects in Japanese schools where Korean cultures is the most often mentioned. To that end, Korean culture contents mentioned in the textbooks were classified into basic element, unique element and element that reflect the times, each of which was then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traditional & modern and surface & in-depth so as to see how each of the categories was presented. Japanese textbooks mentioned mostly surface and basic elements of Korean culture relating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such as *Hanbok*, *Kimchi*, *Ondol*, high-rise apartment and table manners, and also landscape of Seoul. Also, the kinds of contents which constantly appeared in the textbook were mostly basic elements including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Elements that reflect the times such as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and the Korean Wave were adequately covered as part of chronological explanations in the books. The aspect of Korean culture in Japanese textbooks seems to expand in depth and scope over the years. More recently, detailed explanations and visual images were increasingly used to introduce Korean culture.

■ keyword : | Japanese Textbook | Korean Cultural Content | Basic Element | Unique Element | Element that reflect the Times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에 대한 멸시관과 일본의 우월감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잔존해 있던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한국 제품이 일본시장에 유입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상호교류와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위성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정보의 상호침투가 시작되었다[1].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민간차원에서의 한일교류, 무역대국으로의 진입과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 한국기업의 높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련 서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의 교과서에는 한국이 농업국가로 언급될 뿐 한국 문화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교과서에도 한국 문화에 관한 특기할 만한 서술은 거의 없었다가 1990년대부터는 한글, 온돌 등 한국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2].

이와 같이 일본 교과서에서 한국문화에 관한 서술 변화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에 관한 서술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 교과서에 외국의 문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세계지리 요소를 담고 있는 교과서이다. 세계지리는 교과목의 특징으로 인해 외국의 지리, 기후, 문화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과목의 특성상 한국문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세계지리 내용을 다룬 교과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의 '6학년 사회', 중학교 과정의 '지리', 고등학교 과정의 '지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본은 교육과정 편제 상 고등학교 '지리'는 모든 학생들의 필수 교과목은 아니다[3].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학습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콘텐츠의 등장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민간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검정하는 '검정교과서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한 과목당 검정통과 후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사회' 및 중학교 '지리'의 경우 평균 5~7종이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채택률이 높은 상위 1, 2위 교과서가 일본학생들에게 비교적 많이 읽힌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교과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며[4][5][6][7], 교과서의 시계열적 서술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교과서에 대해서는 타 출판사 발행 교과서로 대체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교과서 목록

번호	교과서명	검정년도	출판사
초-1	小学校社会 6下	1985	学校図書
초-2	新訂 新しい社会 6下	1988	東京書籍
초-3	新版 社会 6下	1991	教育出版
초-4	小学社会 6下	1991	大阪書籍
초-5	新しい社会 6下	2001	東京書籍
초-6	小学社会 6下	2001	教育出版
초-7	(新編)新しい社会 6下	2004	東京書籍
초-8	新しい社会 6下	2010	東京書籍
초-9	小学社会 6下	2010	教育出版
중-1	中学社会 地理的分野	1980	日本書籍
중-2	中学社会:日本の国土と世界	1981	清水書院
중-3	改訂新しい社会:地理	1983	東京書籍
중-4	中学社会:地理的分野	1983	日本書籍
중-5	新しい社会:地理	1985	東京書籍
중-6	新しい社会:地理	1992	東京書籍
중-7	中学生の地理: 世界の人人々と日本の国土	1992	帝国書院
중-8	中学生の地理: 世界の人人々とわが国土	1996	帝国書院
중-9	中学生の地理:世界の中の日本	2001	帝国書院
중-10	新しい社会:地理	2005	東京書籍
중-11	中学生の地理:世界の中の日本	2005	東京書籍
중-12	新しい社会:地理	2011	東京書籍
중-13	中学生の地理:世界のすがたと日本の国土	2011	帝国書院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념과 분석범위를 정하고 분석대상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의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파악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3가지의 문화적 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들

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시대별로 콘텐츠의 등장양상, 서술 분량, 사진 및 삽화의 게재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의 변화 양상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선행연구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사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사와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왜곡이 발견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학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수행된 연구물들도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일본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영토문제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서술연구 및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등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유사한 맥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8][9]. 지리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구성을 비교하여 한국 교과서에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국제이해 교육 또는 세계시민성 교육 관점에서의 양국 지리 교과서 비교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10][11][12].

반면,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13][14][15]. 이들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 교과서에 서술된 모든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 '문화'가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중 조철기는 분석 당시의 현행 학습지도요령과 지리교과서(2002, 2006검정통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 근거와 서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독특한 생활·문화, 사상, 종교, 의식주, 한일교류, 영토문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지리 교과서는 주로 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례 학습을 통해 지식과 이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본 초등학교 '사회'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과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30여 년간의 한국 문화에 관한 서술 변화를 고찰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II. 일본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문화 콘텐츠의 시대별 분석

1. 문화 콘텐츠의 정의

'문화'는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유네스코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물질적·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들의 총체로 예술, 언어, 문학에 추가해서 전통과 신념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7].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문화를 한 특정사회나 다른 사회 집단의 특징인 학습된 행동과 관념(믿음, 태도, 가치, 이상을 포함)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동을 통해 생산물 혹은 물질문화가 생성되며 여기에는 관습적인 행동의 산물인 주택, 악기, 도구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18].

이처럼 문화가 포괄하는 범위와 그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특정 사회집단의 고유한 정신, 물질, 행동의 특징들에 대한 총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콘텐츠(contents)는 '내용물'로 해석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할 때는 디지털 기술 기반이 전제가 되었다. 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같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영상·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의미하였다[19].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콘텐츠가 의미하는 범주의 편차는 매우 크다. 콘텐츠라는 용어가 때로는 디지털기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기존 형식의 내용물에까지 사용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20].

이와 같은 개념들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 사용되는 ‘한국문화 콘텐츠’는 한국인의 정신(관념), 물질, 행동의 특징에서 비롯된 생산물(가시적, 비가시적 부분)에 관한 내용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한국문화 콘텐츠의 등장양상 분석

일본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지리’교과서(이후 이들 교과서를 통틀어 ‘일본 교과서’로 명명)에 등장하는 한국문화 콘텐츠는 시대별로도 변화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가 시대적 담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본사회가 각 시대별로 갖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문화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교과서 서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당시대의 교육사조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시대별로 일본 교과서가 한국문화의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갖고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차적으로 초·중학교 교과서의 한국문화 서술내용과 함께 게재된 사진 및 삽화 등의 세부내용들을 살펴 보겠다.

2.1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문화 콘텐츠

[표 2]는 연구대상 교과서를 시기별로 나열하여 각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문화 관련 서술, 사진 및 삽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교과서별 한국문화 콘텐츠의 세부내용

시기	번호	서술	사진 및 삽화
1980년대	초-1	-	-
	초-2	-	-
1990년대	초-3	올림픽	올림픽
	초-4	한국인의 생활	한복, 서울, 올림픽, 초등학교 모습
2000년대	초-5	교류, 한국어 수업, 학교 및 수험제도, 문화 전달자	자매결연, 식사모습, 한국어수업, 한복, 학교 생활, 한·일 불상 비교
	초-6	한복	한복
	초-7	문화전달자, 식문화, 인터넷 문화, 유교의 가르침, 학교생활	한·일 불상 비교, 서울, 한복, 학교생활, 한일월드컵 응원, 고층아파트, 식문화

2010년대	초-8	한국인의 생활, 유교의 가르침, 한글, 한복, 김장, 교류, 한류, 식문화	한국음식, 김장문화, 서울, 학교생활, 식문화, 석굴암, 한복
	초-9	교류, 문화전달자, 한류, 한일월드컵, 식문화, 온돌, 인터넷 문화	서울, KTX, 한복, 한일월드컵, 전통놀이, 식문화, 인터넷 문화
1980년대	중-1	-	-
	중-2	-	-
	중-3	-	-
	중-4	-	-
	중-5	-	한국의 거리
1990년대	중-6	서울올림픽	서울, 한복
	중-7	문화전달자	한자와 한글 사용, 아파트 단지
	중-8	한국인의 생활, 대도시 서울	불국사, 경주교본, 교류, 아파트 단지, 온돌
2000년대	중-9	한일 문화비교	문화전달, 한글
	중-10	-	한복
	중-11	한일 문화비교	문화전달, 한글
2010년대	중-12	한국인의 식단	서울, 식문화, 한일 축구전, 김장문화, 온돌, 지역별 요리
	중-13	식문화	전통결혼식, 서울, 식문화, 김장문화, 온돌, 고층아파트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문화 콘텐츠와 그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2]에서 살펴본 콘텐츠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유형화의 틀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문화 분석틀을 일부 차용하고자 한다[21]. 出野恰는 해외에서 출판된 일본어 교과서의 일본문화 분석에서 문화요소, 문화의 시대성, 문화의 차원이라는 3가지 분석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문화의 시대성(전통, 현대)과 문화의 차원(표층:가시적, 심층:비가시적)을 차용하고자 한다. 문화요소에 관해서는 [표 2]에 나타난 콘텐츠를 고려하여 기본적 문화요소, 독창적 문화요소, 시대반영적 문화요소와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본적 문화요소는 외국을 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소개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식주를 비롯한 국가의 상징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독창적 문화요소는 그 국가만이 갖는 독자적 문화, 사회적 현상에 관한 내용이다. 시대반영적 문화요소는 시대상을 반영한 특징적 문화와 사회적 현상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 유형화

요소 차원		기본적 문화요소	독창적 문화요소	시대반영적 문화요소
표층	전통	한복, 온돌, 한국음식, 민속놀이 (4)	한글, 문화유산 (2)	(0)
	현대	고층아파트, 수도 서울 (2)	한국인의 생활 (1)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KTX, 인터넷문화 (4)
심층	전통	식사예절 (1)	문화전달자, 예의범절 (2)	(0)
	현대	(0)	(0)	한류, 한일교류 (2)

()안의 숫자는 해당 콘텐츠의 숫자를 의미함

[표 3]은 [표 2]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를 문화요소, 문화의 시대성과 차원에 따라 유형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을 보면 일본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문화 가운데 기본적 문화요소인 한복, 김치(김장), 온돌, 고층 아파트와 같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전통 민속놀이, 수도 서울과 같이 표층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식사예절도 한국의 식문화와 관련하여 심층(비가시적)요소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시대반영적 문화의 표층적(가시적)이고 현대적 요소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KTX, 인터넷 문화 등이다. 독창적 문화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한글, 문화유산, 한국인의 생활과 같은 표층적 부분과 문화전달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예의범절과 같은 심층적 부분으로 분류된다.

2.2 한국문화 콘텐츠의 시대별 등장양상

[표 4]는 한국문화 콘텐츠가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기와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등장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시대별 콘텐츠의 등장현황 [22]

콘텐츠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기본적 요소	한복			□	□	○■	□	△□	□
	주: 고층아파트				□	□			□
	온돌				□			△	■
	한국음식					◎■		◎■	◎■
	전통놀이							□	

	서울			□	○□	■		□	□
독창적 요소	식사예절					◎■		◎■	■
	한글				□	△□	□	△	□
	문화유산					■		□	
	학생생활				◎	○	◎■		◎□
	문화전달					○	◎□	○	○
시대반영적 요소	예의범절						○□		○
	서울올림픽				△■	△			
	한일월드컵						□		△□
	인터넷						○		△□
	KTX								□
한류	한류								△
	한일교류					○			△

◎: 1페이지 이상 언급, ○: 단락 언급, △: 문장 및 단어 언급
■: 사진·삽화 2매 이상 게재, □: 사진·삽화 1매 게재

우선, 한국문화 콘텐츠의 시대별 등장현황을 보면 일본 교과서에 한국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의상, 주거문화, 한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을 비롯하여 한글, 한국인의 생활과 고대에 일본에 문화를 전달한 국가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불국사와 경주의 고분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의 교육 및 수험제도 등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의 생활과 주거문화로써의 고층아파트 단지를 소개하는 점도 한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취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보다 확장된 한국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에 관한 언급과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인터넷 문화에 관한 서술이 2000년대 한국의 모습으로 새롭게 언급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의 음식문화, 유교 영향 하의 한국인의 예의범절 그리고 한글에 관한 관심이 교과서를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에 대해서는 1990년대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2000년대부터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풍부한 서술과 시각자료 제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대에는 일본 사회에서의 한류, KTX에 관한 서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윗놀이와 같은 전통놀이에 관한 소개 등 점차적으로 한국문화 콘텐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있어서 2000년대 교과서에는 소량하게 나타났던 한국문화 콘텐츠가 2010년대 교과서에는 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표 4]의 분류를 토대로 초·중학교 교과서를 통틀어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콘텐츠의 성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은 한복, 고층아파트, 서울, 한글, 한국의 학생생활, 고대의 문화전달자이다. 이 콘텐츠들은 기본적 문화요소와 독창적 문화요소들이며 ‘문화전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층적 요소들에 포함된다. 그리고 표층적 요소들인 만큼 서술을 통한 설명보다는 주로 사진 및 삽화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대 반영적 문화요소는 각 시기별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1990년대 교과서에서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한일 월드컵 개최와 한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서술은 2000년대 이후 교과서부터 등장하며 한류와 KTX에 관한 언급은 201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3. 한국문화 콘텐츠 제시방법의 변화

이 절에서는 II장의 2절에서 고찰한 시기별 한국문화 콘텐츠 등장 현황을 토대로 이들 콘텐츠를 설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 4]를 토대로 한국문화 콘텐츠의 서술량 변화와 시기별 서술내용, 사진 및 삽화의 제시방법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대표적 사례로 기본적 요소인 한복, 주거, 식문화와 독창적 요소로는 일본으로의 문화전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한복

한복은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콘텐츠이다. 시대별 한복에 대한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교과서에는 한복사진을 제시하며 ‘설날을 비롯하여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상인 저고리를 입는다[23].’고 설명하고 있다. 2000년대 교과서에는 ‘한국의 민족의상을 읽어보자’는 내용으로 ‘이웃 나라인 한국의 치마·저고리(여성의 민족의상)과 일본의 유카타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쪽 무릎을 세워서 앉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품이 넉넉한 의상과 관계가 있을까?[24]’라는 물음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2010년대 교과서에는 한복을 입은 대가족 사진을 제시하며 ‘상의를 저고리, 즈봉(ズボン)을 바지, 스커트(スカート)를 치마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25].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에 관한 설명과 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한복을 설명하고 있다면, 2000년대에는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의상이 한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복을 체험하고 한복 디자인의 특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2010년대에는 기존의 ‘치마’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던 한복의 명칭을 ‘저고리, 바지, 치마’와 같이 보다 세부적인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제시되는 사진도 설명 내용과 부합되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는 주로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10년대에는 남녀 비율이 동일한 대가족의 한복을 입은 모습을 제시하는 등의 세심한 장치들이 발견된다.




년대	1990	2000	2010
관련 삽화			

그림 1. 한복관련 사진 및 삽화

3.2 주거

주거는 초·중학교를 통틀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심 있게 서술되는 콘텐츠로 2010년대 교과서에는 특히 온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 고층아파트와 관련해서 1990년대 교과서에는 ‘한강변의 아파트군’이라는 제목으로[26], 2000년대 교과서에는 ‘서울의 고층주택’이라는 제목으로 고층아파트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27]. 2010년대 교과서에는 ‘고층맨션이 뽁뽁하게 들어서 있는 서울 주택가’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28].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라고 볼 수 있는 고층아파트에 관해서는 사진으로는 충실히 제공되고 있지만 왜 고층아파트가 주거문화의 특징적인 부분

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온돌과 관련된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교과서에는 온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온돌의 구조: 따뜻한 연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방바닥에는 돌 등으로 만든 칸이 있다.’는 내용을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29]. 한편, 2010년대 교과서에는 옛날과 현재의 온돌을 비교한 삽화가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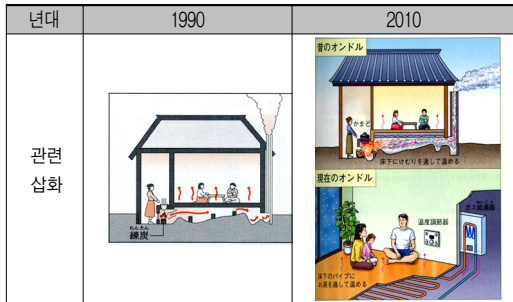


그림 2. 온돌관련 사진 및 삽화

옛날 온돌은 ‘방바닥에 연기를 통하게 하여 따뜻하게 한다.’와 같이 설명하고 현재 온돌은 ‘방바닥의 파이프에 온수를 통하게 하여 따뜻하게 한다.’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30]. 그리고 옛날의 온돌은 부엌 아궁이의 열기를, 현재의 온돌은 가스 급탕기를 이용하고 있음을 삽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온돌은 독특한 한국만의 난방문화로 일본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2000년대 교과서까지 설명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전통식 온돌 원리였다. 온돌의 원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전통식 원리가 기본 정보로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2010년대의 삽화와 같이 현대 난방 방식과의 비교 제시는 매우 진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3.3 식문화

식문화는 2000년대 교과서부터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콘텐츠이다. 대표음식으로서 김치(김장), 저장도구로서의 김치냉장고를 비롯하여 일본과 다른 식사방법과 식사예절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2000년대 교과서부터 한국의 식문화가 등장하며 다른 콘텐츠에 비해 많은 비중으로 상세한 설명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이 반영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0년대에는 주로 한국 가정의 식사모습의 사진과 식사예절에 관한 언급들이 주고 나타난다. 예컨대 식기를 손에 들거나 입에 갖다 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고 수저는 금속소재를 사용하며 옷어른보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다[31]. 2010년대에는 김장을 담는 모습과 부침개 만들기를 시도하는 내용과 사진들이 실려 있다[32]. 2010년대 중학교 교과서에는 김치냉장고의 사진과 갈비, 불고기 등의 한국음식, 각 지역별로 발달된 음식에 관한 삽화가 게재되고 있다.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음식, ‘숟가락의 사용’으로 대표되는 식사 방법이 주요 구성내용이었다면, 2010년대 교과서에는 사례 조사 및 체험의 형태로 기후·지형과 식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까지 제시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33][34].



그림 3. 식문화관련 사진 및 삽화

3.4 문화전달 가교로서 역할

한국이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인접 국가이며 이와 같은 지리적 관계로 인하여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으로 문화를 전달한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언급이 1990년대 교과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학교 교과서에는 ‘일본은 예로부터 대륙의 문화를 수용해 왔는데 불교·유교, 직물 기술 등 대륙문화의 대부분이 조선반도를 가교로 일본으로 전해졌다.’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35]. 2000년대 교과서에도 ‘일본문화에는 유교·도자기·약·김치·불고기 등 조선반

도 문화의 영향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서술과 함께 중국과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를 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36].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2000년대 교과서에 ‘한자와 불교는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전달되었다.’고 서술하면서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목조반가사유상의 모습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37].

2010년대 교과서에는 ‘5세기경부터 한국에서 많은 도래인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대륙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전달했다. 에도시대에는 조선통신사가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환영을 받았다.’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38].

이처럼 일본으로 대륙의 선진문화를 전달했다는 간략한 서술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제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단어 제시, 조선통신사 일본방문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이 최근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등 문화전달 교과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점차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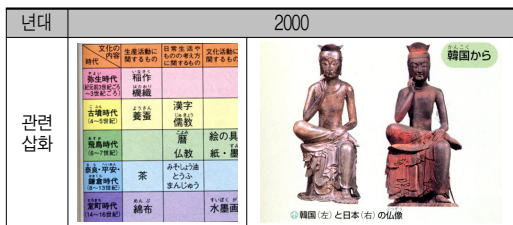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전달관련 사진 및 삽화

III. 결론

교과서라는 매개체가 갖는 특징은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대표성과 압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교과서에 다루지는 한국문화 콘텐츠는 기본적 문화요소와 독창적 문화요소에 많은 비중이 들어진다는 결론과 귀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화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국제 이해’라는 교육 목표 하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타국 문화의 이해에 있어 각국의 기본적 문화요소와 독창적 문

화요소는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편, 교과서가 갖는 한계점은 교육목표 및 학습자의 교육적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교과서 출판사를 막론하고 한국 문화를 다루는데 있어 그 범위가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으며 변화의 양상도 타 매개체와 비교하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고찰 결과는 이와 같은 교과서의 특수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한복, 김치, 온돌, 고층아파트, 식사예절과 같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수도 서울의 모습과 같은 표층적이고 기본적인 문화요소가 시기와는 상관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교과서가 갖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대표성이 최근 교과서로 올수록 내용과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 문화요소의 틀을 넘어서, 유교 영향에 따른 한국인의 예의범절, 한글에 대한 관심 등 심층적이고 독창적인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한일월드컵, 한류 등 당시대상을 반영하는 요소들도 등장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비중 면에서는 여전히 기본적 요소를 많이 할애하고 있지만, 다루는 콘텐츠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 제시방법은 교과서가 갖는 정보의 압축성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지면에 얼마나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국에 대해 할애된 지면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분명 한국에 대한 지면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제시방법도 ‘단편적 정보 전달형’에서 ‘복합적 사례 조사를 통한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물론 교육 목표에서 제시하는 학습방법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일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며, 이 때 아동이 한 국가를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외국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39].’와 같이 교육 과정 해설서에 명기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중략) 세계 각 지역 및 국가를 조사함에 있어 그 시점과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40].’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즉 콘텐츠 제시방법에 있어 기존의 ‘지식 주입’에서 최근의 ‘사례 조사를 통한 이해’라는 교수 방법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할애된 지면의 증가와 함께 연동되어 결과적으로 ‘점차 풍부한 한국문화 콘텐츠의 구체적·다층적 접근’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타 국가에서 대해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문화 콘텐츠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문화 콘텐츠의 변화 양상과의 비교 고찰도 필요할 부분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주목하는 한국문화 요소와 한국에 대한 담론과의 연계 고찰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일본 교과서의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형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두기로 하고, 일본 사회의 담론과의 상관관계, 다른 국가와의 비교 고찰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鄭大均, “戰後日本人の韓國觀”, 일본학, 제33집, pp.7-27, 2011.
 [2] 박소영, “일본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의 변화상 - 한국의 변모와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제6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집, 2012.
 [3] 박소영, “일본의 한국관련 교육과정·교과서 정책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 KU-CR-03-04 주변국가의 한국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연구, pp.87-147, 2003. (일본 고등학교는 ‘세계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사’와 ‘지리’는 이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리’는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4]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會, 教科書レポート2005,

出版勞連, 2005.

[5]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會, 教科書レポート2006, 出版勞連, 2006.
 [6]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會, 教科書レポート2011, 出版勞連, 2011.
 [7]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會, 教科書レポート2012, 出版勞連, 2012.
 <초등학교 ‘사회’ 및 중학교 ‘지리’ 채택율>

과목		채택률		
		1위	2위	3위
초등학교 사회	2005년도용	東京書籍 (49.9%)	教育出版 (26.3%)	大阪書籍 (17.1%)
	2011년도용	東京書籍 (52.8%)	教育出版 (26.0%)	大阪書籍 (15.4%)
중학교 지리	2006년도용	東京書籍 (43.0%)	帝国書院 (34.3%)	大阪書籍 (10.0%)
	2012년도용	東京書籍 (47.9%)	帝国書院 (31.7%)	教育出版 (14.1%)

[8] 박병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제11호, pp.7-24, 2011.
 [9] 이하나, 조철기,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 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2-347, 2012.
 [10] 이진우,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양원택, “한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국제이해교육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권, 제2호, pp.75-92, 1996.
 [12] 심광택, “시민성 교육 관점에서의 한국·중국·일본·호주의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교과서 살펴보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53-68, 2012.
 [13] 李長烈, “日本の中等地理教科書에 나타난 韓國觀”, 관대논문집, 제10권, pp.455-467, 1982.
 [14] 손용택,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비친 한국”, 지리학연구, 제31권, pp.1-18, 1997.
 [15] 조철기,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4호, pp.655-679, 2008.

[16] 서은숙,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417-427, 2009.

[17]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8] Carrl R. Ember·Melvin Ember, 양영균 역, *문화 인류학*,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2

[19]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제1권, pp.5-27, 2003.

[21] 出野恰, “海外出版の日本語教科書にみる日本文化”, 龍谷大學大學院國際文化研究論集 8, pp.67-84, 2011. (出野恰는 문화요소, 문화의 시대성, 문화의 차원이라는 3가지 분석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 문화요소는 문화인류학에서 사용되는 상호작용, 연대, 생계, 성(性), 공간, 시간, 학습, 놀이, 방위, 개발을 설정하였고, 문화의 시대성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의 차원으로는 표층과 심층을 설정하여 일본문화를 분석하였다.)

[22] [표 4]의 콘텐츠 등장비중은 분석대상 교과서 가운데 시기별 초, 중 교과서에서 한국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비중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23] 日比裕, *小學社會6下*, 大阪書籍, p.48, 1992.

[24] 伊東光晴 外, *小學社會6下*, 教育出版, p.42, 2002.

[25] 北俊夫 外, *新しい社會6下*, 東京書籍, p.53, 2011.

[26] 佐藤久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62, 1997.

[27] 佐々木毅 外, *新編新しい社會6下*, 東京書籍, p.40, 2005.

[28] 中村和郎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115, 2012.

[29] 佐藤久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60, 1997.

[30] 中村和郎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115, 2012.

[31] 佐々木毅 外, *新編新しい社會6下*, 東京書籍, p.40, 2005.

[32] 有田和正 外, *小學社會6下*, 教育出版, p.41, 2011.

[33] 五味文彦 外, *新しい地理*, 東京書籍, p.99, 2012.

[34] 中村和郎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115, 2012.

[35] 谷澤大二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320, 1993.

[36] 中村和郎 外, *中學生の地理*, 帝國書院, p.199, 2002.

[37] 佐々木毅 外, *新編新しい社會6下*, 東京書籍, p.32, 2005.

[38] 有田和正 外, *小學社會6下*, 教育出版, p.38, 2011.

[39]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09/06/16/1234931_003.pdf

[40]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11/01/05/1234912_003.pdf

저 자 소 개

박 소 영(So-Young Park)

정희원



- 2000년 3월 : 일본 국립오이타대학 국어교육과(문학석사)
- 2003 6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일본)교과서분석, 일본인의 한국 인식